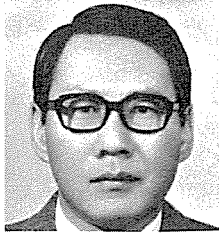


# 京畿道支部



李鍾段 지부장

## 지부장 인사

금번 지부순례단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사가 몸담고 있는 건축사협회는 **백야호**로 창립20주년의 성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지나간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 건축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 또한 각시도의 역대 지부장님과 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없었던들 오늘의 우리가 과연 어떠했을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과 같이 급진적으로 발전, 향상되는 시대에 우리 건축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회를 구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각자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협회의 발전 또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올해는 일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회원님들이 각성하시어 건축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전환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사무소 실태를 보면 각양 각색입니다. 대규모의 사무소에서부터 정돈되지 않은 비좁은 공간의 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무소들은 이제 정리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세기를 벗어나 21세기라는 대망의 전환기를 맞는 우리 건축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보존해야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수탁의 정상화 문제, 지나친 설계보수의 덤핑문제, 불성실한 건축주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인한 분쟁문제, 애매한 법해석으로의 유도, 업무의 과다수탁으로 인한 소화불량증의 회원 등등 이모든 것이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큽니다. 너무나 지나친 기대감과 지나친 욕심……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지난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관심있게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정상회원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권익의 보호가 뒤따를 것이며 많은 협조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리를 일삼는 회원은 당연히 예외가 될 것입니다.

차제에 사무소의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한 번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 경기도지부 회원은 약60여 명이 증가되었는데 다수의 회원이 인접 지부에서 전입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원이 전입되는 것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회원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지부는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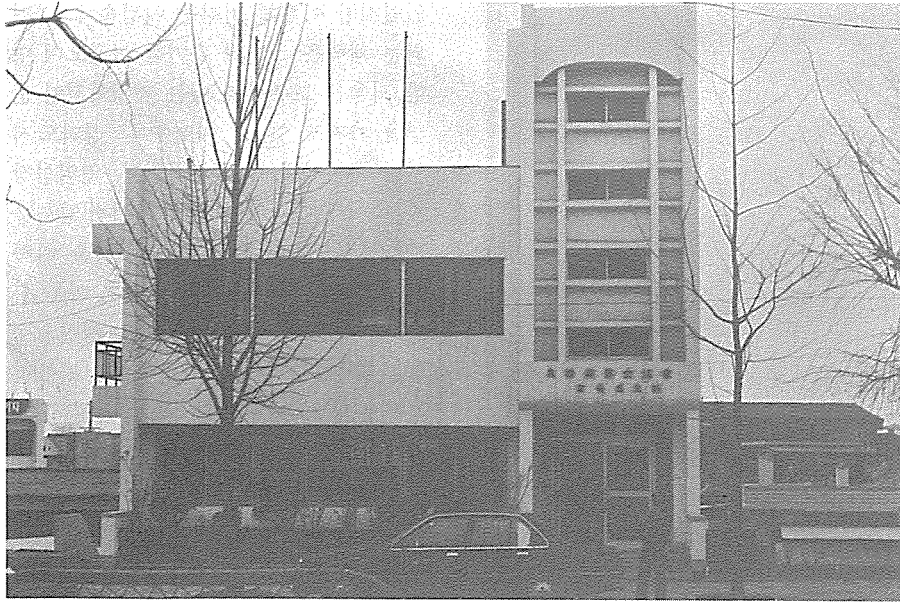
의정부, 남양주, 성남, 부천, 안양, 수원, 송탄, 이천, 광명 등 여러 지역에서 타지부 회원의 업무수탁 등(특히 소규모 주택 등의 경우)이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탁이라면 굳이 문제시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발 정도를 건지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회원님들,

다 함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힘차게 걸어갑시다.

끝으로 여러 회원님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 지부의 성장과정

위에서 기술 한 바와같이 창립회원 26명이 20년이 지난 지금 회원 206명으로 서 약10배로 증가하였고 도서신고실적 규모로 볼 때 1971년에 976,614 제곱미터에서 1984년에는 9,408,775 제곱미터로 10배의 업무신장은 되었으나 현재 회원 1인당 약 48,000제곱미터의 실적은 시대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볼 때 성장이나 업무량의 증대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외곽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위치한 관계로 해를 거듭할 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회원수는 경기도 지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 고통스러울 정도이다. 타지부회원의 저작권침해, 비리건축사, 건축주와의 갈등,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 등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경기도지부 회원들은 성장에 수반되는 이쁨으로 알고 협동의식과 지혜로 사회문제가 될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고 모든 내외의 악영향의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회사사업의 일환책으로 공사감리점검제도를 구성하여 회원의 권익을 성장시켰으며 이제는 안전기반을 구축하였고 노고회원의 표창과 감사패등으로 회원의

## 지부 현황

1965년 최초로 건설부에서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6명이 법률 제 1536호로 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의거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지부장에 심의권회원을 선출하였으며 임원으로 간사 3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인천시 중구 용현동에 처음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출발하였다. 1970년 3월 20일 지부사무국을 인천에서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 매산로3가124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76년 9월 25일 수원시 매산로3가 124의 5번지 현재 사용중인 신축회관으로 이전하였다.

본 회관 신축은 1973년 6월 31일 회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켜 숙원사업으로 삼아 임원과 회원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과 뜻을 모아 1975년 9월 29일 착공하여 1975년 1월 24일 일부준공을 보았고 1976년 9월 11일 대망의 회관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당시 회원들의 뜻과 정과 땀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1981년 7월 1일자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지부 관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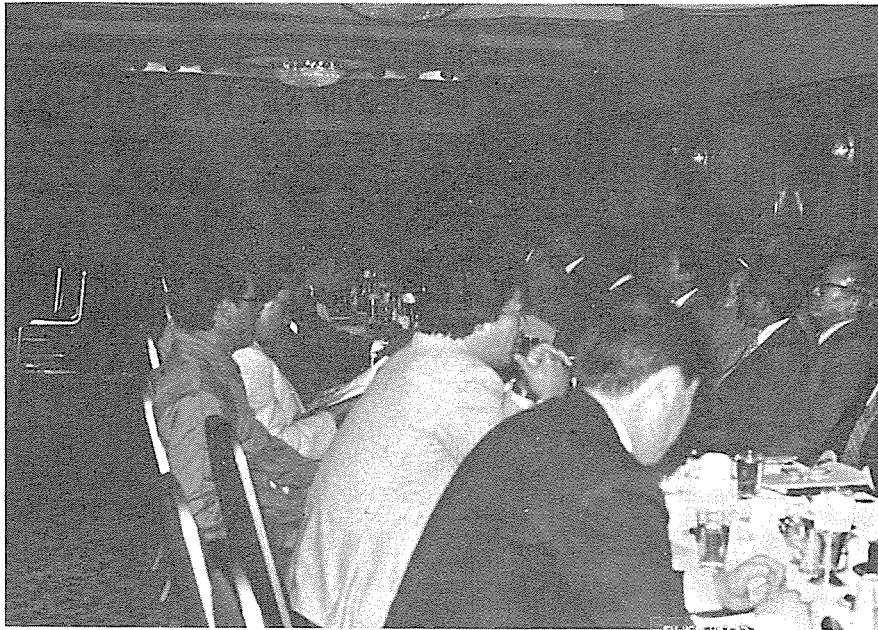
있던 인천본소가 1982년 1월 1일자로 지부로 승격, 경기도 지부에서 분리되어 현재 지부직할지역의 4개시, 군을 비롯하여 7개시 16개군에 8개본소를 포용하고 204명의 회원이 參集한 지부로 성장하였다.

### ○회관규모

- 대지면적 : 151,807 제곱미터
- 건축면적 : 113,075 "
- 건축연면적 : 377,337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스텝층
- 총공사비 : 14,816,861원

### ○역대임원현황

순 위	지부장	간 사	감 사
초 대	심의권	김정수, 이기은, 장원선	정은용
2	심의권	김양규, 김정수, 장원선	정은용, 김남규
3	김응연	김진두, 김중희, 박성희	이학규, 박준희
4	김일호	김진두, 김중희, 박성희	이학규, 박준희
5	정은용	조병원, 이병무, 조명호	김기배, 김찬목
6	정은용	조병원, 이병무, 조명호	김기배, 김찬목
7	김일호	조병원, 홍행남, 문수일, 조상호, 이종은	고종욱, 이병목
8	김기배	민병휘, 홍행남, 한교선, 이병목	-
9	이석구	민병휘, 임용수, 정환철	-
10	임용수	최원설, 길철균, 최승원, 이일운, 황재성	김춘경, 이창원



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 단련되는 체력은 강인한 끈기를 키웠으며 또한 서울을 포용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운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수록 경기도지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겠으며 특히 복지회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이해와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공동체의식을 높여갈 때 경기도 지부의 장래가 밝을 것으로 확신되는 바이다.

사회에서 우리 건축사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고 민도의 차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자유업분야 몇종과 비교할 때 자책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도사

의식을 고취시켜 건축문화창달과 지부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지부회원의 단합대회와 친목회등은 회원 결속에 촉진제가 되는 동시 회원의 경조사에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부상조함으로써 화합단결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제일 어려운 점은 본협회에서 영달되는 한정된 소규모의 예산으로 지부살림과 단독 특별사업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하나 회원의 인내와 협조는 발전에 박차를 가해 경기도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축사 품위진작과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통합예산제도가 시행되어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자체예산제도나 아니면 지부실적의 비례로 자금영달되는 체제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회원의 바람이다.

### 지부의 운영방침및 진로

경기도지부는 소년기에서 성년이 되는 20세 지금까지 성장과정의 애로의 역정이 심했고 발전에 무리한 박차와 장애가

###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사 무 소 소 재 지	전 화
지 부 장	이종은	영신건축설계사무소	광명시 광명동 290-34	612-0223
간 사	이일윤	이일윤건축사사무소	수원시 교동 79-5	42-4710
간 사	황재성	현대건축설계사무소	부천시 원미동 88-1	62-5398
간 사	길철균	홍익유림합동건축	성남시 태평동 3309-480	2-1978
간 사	김중권	김중권건축사사무소	금촌읍 아동리 338	2-2410
감 사	양하섭	양하섭건축설계	안양시 안양동 505-8	2-3315
감 사	한광섭	현대건축설계사무소	평택읍 평택리 66-5	2-4460
부천분소장	정환철	정환철건축사사무소	부천시 심곡동 87-11	63-1881
광명분소장	김평선	남양건축설계사무소	광명시 철산동 464-7	612-2261
안양분소장	최재남	삼양건축연구소	안양시 안양동 504-3	2-7625
남양주분소장	윤문혁	성보건축설계사무소	구리읍 수택리 409-285	2-8112
성남분소장	민병운	대영신한합동건축	성남시 신흥동 5517	42-7880
이천분소장	안의모	연합건축설계사무소	이천읍 창전리 136	2-2101
송탄분소장	우선명	원영건축설계사무소	송탄시 신장동 217	4-2282

### ○분소별 회원현황

분 소 별	건축사	2급건축사	관 할 구 역
지 부 직 할	28	16	수원, 반월, 용인, 화성
부 천 분 소	23	8	부천, 김포, 강화, 용진
광 명 분 소	6	-	광명
안 양 분 소	30	3	안양, 시흥, 과천
의 정 부 분 소	18	9	의정부, 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연천,포천
남 양 주 분 소	10	3	남양주, 양평, 가평
성 남 분 소	21	7	성남, 광주
이 천 분 소	6	1	이천, 여주
송 탄 분 소	13	8	송탄, 평택, 안성

실이다. 물론, 극소수 회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회원은 보호하고 비위회원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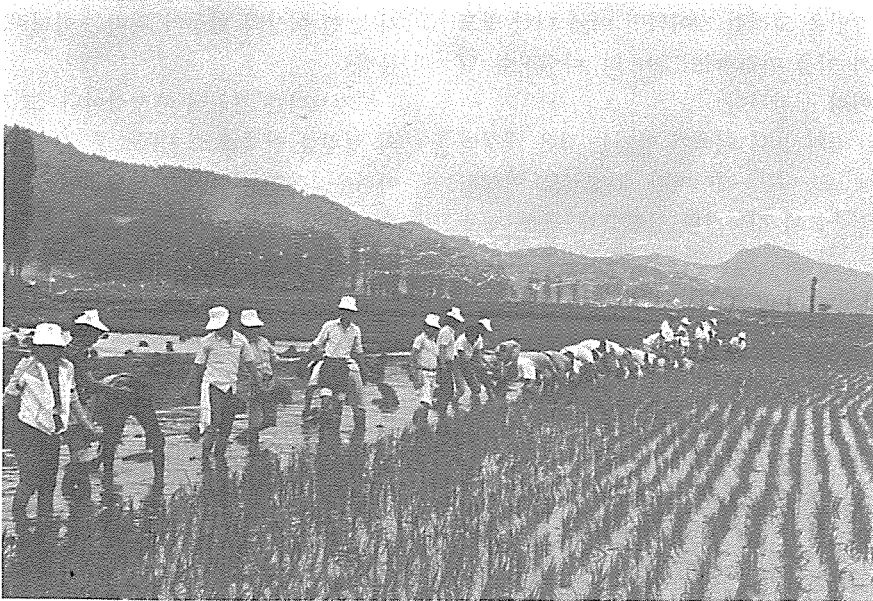
특히 86·88올림픽이 펼쳐진 국가적 사업에 뒤짐이 없는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타주요업무및 사업실적

- 1) 경기조찬회를 통한 대의관련업무증진
- 2) 건축행정에 관한 대관청과의 분소별 순회 간담회 실시
- 3) 시민을 대상으로한 건축행정상담실 운영
- 4) 건축조례집 발간등 기타 건축법규

집 발간 배부

- 5) 전국에서 최초로 감리단 구성운영
- 6) 보조원 관리를 위한 기록카드 작성관리
- 7) 도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도서검토제실시 .
- 8) 자매결연학교 보조금 및 장학금지급
- 9) 연말년시 국군장병위문및 불우이웃돕기 실시
- 10) 자연보호 운동 실시
- 11) 건축사보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 12) 회원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 개최
- 13) 회원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 14)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 15) 방위성금및 전국 체육대회 성금전달



○년도별 회원 현황 및 설계도서 신고현황

연 도 별	회 원 수	도서신고실적(제곱미터)
1965	26	
1970	50	
1971	68	976, 614
1972	75	1, 064, 075
1973	81	2, 389, 632
1974	89	2, 236, 438
1975	97	2, 429, 761
1976	106	3, 138, 464
1977	132	4, 048, 616
1978	147	8, 134, 350
1979	166	6, 848, 178
1980	189	5, 642, 675
1981	150	4, 351, 154
1982	156	4, 731, 344
1983	161	8, 219, 276
1984	196	9, 408, 775

